

집착 없는 마음이 '정토'

혼자 즐기고 말았으면 지금까지 면면히 전해 올 불교라는 종교는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니가 말입니다. 불자의 행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보배세상을 중생들에게 펼쳐 보이셨듯이 불자들도 불법에 귀의하여 배운 바른 진리를 이웃에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비이고 자비는 실천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지성이 비판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속의 일도 그런데 불법(佛法)의 찬란한 세상에서 불성을 드러내지 않고 편협한 삶을 영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불자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100년 후 1000년 후의 자신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막막할 겁니다. 어떤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윤회하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지요?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라는 이치입니다. 미래의 자신을 일러고 하지 말고 지금의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굳은 믿음으로 얼마나 배우고 알아차리고 얼마나 실천하는가를 반조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환하게 드러나는 자신의 실체가 보일 것입니다."



르신 위문 및 경료잔치는 기본이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농산물직거래 장터 등을 꾸리면서 공부하는 불자상 확립을 위해 <금강경> 강좌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2009년에는 '다출산장려금후원회'를 조직해 국가적 화두인 저출산 문제 극복에 동참하고 있다.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다시 불자님들에게 나누는 삶의 행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것은 작은 실천이지 거창한 계획이나 구호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불자는 회향하는 사람 살아야 합니다. 수행이라는 안살림을 나누고 베푸는 바깥살림을 통해 회향될 때 완성되는 겁니다."

부처님은 여러 제자들을 통해 대중공양을 올린 사자(師子)의 공덕을 칭송하면서 이렇게 비유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강물의 맛을 보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세상에는 강이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법이 한 가지 있다. 바닷물을 마시면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사로운 일체의 공양과 보시는 저 강들과 같다. 그래서 복을 얻기도 하고 못 얻기도 한다. 대중은 저 바다와 같다. 모든 훌륭한 사람도 다 대중 가운데 있다'라고. 물론 부처님은 '축생에게 보시를 해도 복을 받는데 하물며 사람이겠느냐'며 대중공양만 수승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혔다.(증일아람 '불선품')

중요한 것은 세상을 향해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 바닷물을 떠먹을 준비가 된 사람은 언제든 바다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강가에서 방황하는 것이다. 학립 스님은 불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나가는 길을 열었고 그 길에서 무한한 공덕의 꽃을 피우고 있는 셈이다.

"나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앓을 견고하게 다지고 바깥으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그 행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일하고 많은 것을 드러내면 아무런 공덕이 없을 뿐 아니라 속으로 집착의 그늘만 두꺼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취재에도 응하지 않으려 했던 것인데..."

대중을 건넌 사람이 땀뭍을 흘리고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믿음의 길이 반듯하고 공부하여 안살림을 행하는 힘이 굳건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그 일에 집착하지 않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길 뿐이다. 학명 스님은 그렇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불자가 늘어날수록 사는 세상이 극락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했다.

"극락이 어디입니까? 행복한 그 순간이 극락이고 마음 편한 그 자리가 정토입니다. 수시로 극락을 짓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극락이 허물어지면 자유이 지어지겠지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극락을 몇 시간 짓고 지옥을 몇 시간 짓는지 생각해 보면 자신의 성적표가 나옵니다. '신해행중'이라는 4과목의 성적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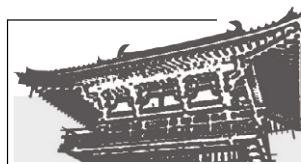
법당에서 목탁소리가 울렸다. 법회가 열리는 날이다. 그래서 일찌감치 가사를 수하고 있던 학명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시간 됐으니 이만 줄입니다. 부끄러운데, 아무 말 안들은 걸로 하면 더 좋겠고..."

급하게 법당으로 향하는 학명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엉뚱한 궁금증이 솟았다.

'스님은 지금 신 해 행 중 4과목 가운데 어느 과목을 수업하려 가시는 걸까?'

글·사진=임연태(인본, 본지 논설위원)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소가노 이나메(蘇我稻目)

백제로부터 일본에 불교가 전래된 시기에 대해 예전에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다. 대체로 <일본서기>의 552년설과 <원흥사연기>등의 538년설이 대립을 이루고 있었지만 후자가 유력한 것으로 판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일본서기>의 편찬자가 불법의 쇠퇴를 말하는 말법사상에 의거 실제보다 연대를 늦추어 잡았다는 설 등이 설득력 있게 되고, 백제는 신라와 고구려의 압박에 의해 538년 웅진(공주)에서 사비(부여)로 천도해야 했으며

모셔야 하거늘 지금 다시 번신(蕃神)을 모시게 되면 아마도 신의 노여움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왕은 "그러면 불상을 모시고자 하는 소가노 이나메에게 이를 맡겨서 시험 삼아 예배하도록 해보자"는 절충안을 냈다. 이나메는 불상을 집에 모시고 정성껏 예배했다. 이후 나라에 역병이 돌자 반대파는 이를 불상의 탓으로 돌려 지금의 오사카(大阪)인 난바(難波)의 강에 버리게 하고 불상을 모신 절도 불태워 버렸다. 이후 또 한 차례의 폐불 파동이 있은 후에야 불교는 일본 국내에 서서히 자리 잡게 됐다. 7세기 초 쇼토쿠 태자(聖德太子)에 의해 불교는 비로소



나라에 소재한 원흥사(元興寺). 6세기 말 소가노 우마코가 지은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사찰인 아스카사(飛鳥寺)가 그 전신이다.

의해 불교는 비로소 일본 고대국가 성립에 커다란 역할을 부여 받게 됐다.

지금의 말로 하자면 이나메는 한반도로부터 선진문물을 받아들인 테크노크랫에 해당한다.

이미 이나메는 고대 왕권국가 확립의 기반 조성에 관여하고 있었다. 그는 미야케(屯倉)라고 하

불교 전래의 주역... 고대 왕권국가 기반 다져

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소가씨는 원래 백제의 고급관료인 목만치(木滿致)가 5세기말 현재의 나라현(奈良縣)에 해당하는 아마토(大和)에 정착한 것으로부터 유래한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집안 내력을 소유한 이나메가 한반도로부터 불법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일본서기>에는, 백제의 성명왕(聖明王)이 일본에 불법을 유통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전해들은 킨메이왕(欽明王)이 이를 기쁘게 생각하며, "나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직 이와 같이 미묘한 법은 듣지 못했다. 그래도 나 혼자만으로 결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킨메이왕은 신하들에게 "서쪽 나라에서 전해진 부처님의 얼굴을 단아하고 고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여겨져 본 적이 없다. 이를 모실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나메는 "서쪽의 나라들은 모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일본만이 어찌 이에 등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라며 당당히 승불을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당시의 정적이었던 모노노베노 오코시(物部尾門)와 나카토미노 카마코(中臣鎌子)는 반대입장에 섰다.

이들 반대파에 섰던 사람들은 "우리 임금의 천하의 왕으로서 당연히 천지사지의 180신을 존하추동

는 왕의 직할지를 곳곳에 두어 행정체제와 재정적 기반을 세우기도 했다. 이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통치와 재정관리의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기술 관료의 전통을 이어받은 아들 우마코(馬子)는 정계를 장악해 쇼토쿠 태자와 더불어 고대 통일국가체제 확립에 기여했다. 불교가 고대 동아시아 문물교류의 주역의 역할을 담당했음은 이처럼 소가씨족의 활동을 통해서도 여실히 알 수 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번신'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웃의 신, 외국의 신이라는 말로 옮겨진다. 일본열도에는 야오요로즈노 카미(八百萬神)라고 하는 말이 옛날부터 전해진다. 수없이 많은 신이라는 뜻인데, 일본에는 신들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신들이 모셔지고 있던 것이다. 불교가 이러한 신들 중의 하나인 외래의 신으로 보였음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했다. 이후 전개되는 일본불교의 역사는 신들과의 제휴과정인 신불합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승불파이자 개혁파인 이나메의 대척점에 서있었던 배불파는 토착신들을 모시는 원주민 제통이자 보수파였음은 여기에 미루어 충분히 짐작된다.

■ 원형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티벳 사자의 서』에 의한 중음에서의 해탈법

다음 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까지 49일 동안 망자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어떻게 천도해야 망자를 해탈 또는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할 수 있는가?

이 책은 중음의 기간 중 단계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천도를 하는 이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망자를 어떻게 경책해야 하는지 등을 담고 있다.

석범성 편역 | 신국판 변형 | 144쪽 | 값 8,000원



한 권에 담은 우리 절집 이야기!

절집 길라잡이

일주문부터 산신각까지 사찰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건축물과 불상, 그림, 조각 등에 대해 꼼꼼하게 구석구석 설명

절을 찾는 이들을 위한 가이드북!
절집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름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왜 그런 모양으로, 왜 그런 구도로, 왜 그곳에 자리하고 있는가?
이 책은 이런 궁금중들을 풀어준다.

김영숙 저 | 신국판 변형 | 컬러 | 224쪽 | 값 13,000원

